

가정을 경영하는 방법

요즘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경영’ 이란 말이 필수요소처럼 되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경영’이고, 세계적 글로벌 기업도 ‘경영’입니다. 경영 마인드를 갖지 못하면 현대사회에서 도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관계로 맺어졌다고 해서 경영마인드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붕괴가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예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정경영” 이란 말을 했으면,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안의 가장이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회사를 혼자 힘만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가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이는 어떤 꿈이 있는지 공유가 되어있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런 관심은 곧 가정을 슬기롭게 경영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은 각자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한 번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家庭を経営する方法

このごろはすべての分野において‘経営’という言葉が必須要素のようになりました。町内雑貨屋も‘経営’で、世界的グローバル企業も‘経営’です。経営マインドを持つことができなければ現代社会で淘汰されるという意味です。

家庭も同じです。血縁関係で結ばれたとして経営マインド的な接近ができなければその家庭は自分も分からなくずっと崩壊になって行ってしまうでしょう。

昔の家父長的社會では“家庭経営”であるというものを言つたら、家長が家庭を導いて行くことと考えたはずです。しかし現在は家の家長が一人で家庭を導いて行くというのは会社をひとりの力だけで起こして立てることと同じです。

家庭経営において一番重要なことは“共有”です。家長がどんなビジョンを持っているのか、妻がどれを願っているのか、子供はどんな夢があるのか共有がなっているならお互いに关心を持つしかなくて、そんな关心はすなわち家庭を賢く経営する元になります。

もし皆さんは今ご主人がどんな考えを持っているのか、妻が何を考えているのか、子供が願うのが何か考えたことがあります？

今日は各々望む、望むものなどを一度話して見るのはどうでしょうか？